

금요 수필

빈자리 앞에서

지 하릴 문이 열리면 나는 작은 전등처럼 들어선다.

시골에서 심경한 지 십여 년, 흔들리는 좁은 길은 여전히 낯설다. 손에 쥘 수첩과 노선도는 나 짝반이지. 밤새, 술을 고르고 사람들의 기척을 살피는 일은 나의 전라이나.

환상의 최적 지점을 찾는 지인들의 정보는 아직 내게 장착되지 못한 무기다. 나는 단순함으로 부장했다. 잠시 몸을 기대고 숨을 돌릴 자리 하나. 그 바탕이 지하철을 살변한 점쟁터라 믿는다.

의자는 사람으로 가득 차. 어디에 서야 하고, 어느 순간에 자리가 날까? 책의 틈을 노리는 장군처럼 나는 숨을 죽인다. 눈에 희운 수채물을 살짝 얹자면 사람들의 눈빛과 손짓, 작은 술잔까지 살핀다. 내 뒤 좌측에서 세 명이 동시에 자리에 서 일어났다. 눈앞에는 세 개의 빈자리. 그러나 내 의심과 쫓겨 습관이 발목을 잡는다. 손 끝에 땀을 뺀 듯 달지 않는 그림 속 맥가.

대여섯 정거장을 지나면서 의자의 주인은 끊임없이 바뀐다. 조용히 책을 읽는 사람, 두리번거리며 좌편을 훑는 사람, 휴대폰으로 다들 눈을 확인하는 사람. 그 짧은 순간마다 삶은 변하고, 자리는 또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 빈자리는 단순한



박갑순

시인 · 수필가

공간이 아니다. 내 의자와 타인의 의자 사이에서 생기는 순간의 작은 기적이다.

의자 틈새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웃음소리, 구두 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손수건 끝이 눈에 들어온다. 그 모든 것이 순간을 읽는 신호다. 나는 작은 소리 하나, 흔들리는 칸막이 하나에도 마음을 기울인다. 한 호흡, 한 숨결마다 전부는 계속된다.

내가 떠돌던 '자리 잡기 요령'은 난순하다. 의자 중앙에 서서 사람들의 기척을 감지하며 마음을 비우는 것. 그러나 주변에 노약자가 있으면 그 순간조차 헛수고다. 살갓이라도 닦듯 생각을 하거나 문자를 확인하면 자리는 순식간에 타인의 것이 된다.

가끔 사연 있는 사람들이 올랐던 다. 작은 종이에 담긴 삶의 무게가

내 무릎 위에 놓인다. 거친 손, 기형적으로 굵은 눈, 어깨 위에 묻어오는 하루의 흔적들. 그때 내 안 깊숙이 작자고 있던 여타이 깨어나다. 짧은 시절 나는 반드시 도와야 한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조금 자유롭다. 무조건 주는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몸으로 배웠다.

버스에서도 전부는 이어진다. 학생들의 하교 시간, 좁은 통로 속에서 선택과 권한이 뒤섞인다. 누구를 배려하고, 누구를 관찰할지 결정하는 순간마다 숨이 멎는다. 앞에 붙어선 할머니에게 자리를 내주고, 바스라거리는 시상바구니 속 대과를 받아 래 두며 보내는 감사의 눈빛이 스치는 순간, 내 몸속이 따뜻하게 부풀어 오르다. 칸 안의 숨결이 잠시 조용해지고 정경과 계산으로 딱 차 있던 마음이 느리게 풀린다. 손끝으로

스친 자리 하나, 몸에 스치는 옷사라. 발끝으로 전해지는 바닥의 진동 등 작은 여운 속에서 정경보다 오래가는 승리가 산산하게 빈진다.

갈게 늘어선 플랫폼과 좁은 통로 사이, 지하철과 버스 속, 작고 사소한 전무 속에서 나는 조용히 빈자리 앞에 선다. 그 자리 하나 얻는 일이,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일이, 삶의 무게를 조금 더 견디게 하는 힘이 될 줄을 안다.

사람들의 숨결, 발걸음, 손짓, 가장 끄트머리까지 얽힌 공기에서 나는 늘 배우고 있다. 환승간의 선택, 스친 손끝, 조용히 낫달은 눈빛. 그것이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길을 찾는 나만의 전략임을 빈자리 앞에서 나는 배반 확인한다.

오늘도 나는 작은 전등처럼 자리 하나를 눈앞에 둔 채 서 있다. 마음속 비우고 기척을 읽는다. 빈자리 하나, 삶의 작은 기억 하나. 그것으로 충분하다.

*박갑순 시인 겸 수필가는 1998년 '자유문학'에서 시로, 2005년 '수필과비평'에서 수필로 등단했다. 시집 '우리는 눈물을 연습한 적 없다' 외 1권, 수필집 '꽃망울 떨어질다' 외 1권, 동시집 '아빠가 배탈돼요'가 있다. 현재 (사)한국문학 평명지부 회장으로 있다.

사설

'자연이 준 선물 마이산' 사진전

김재일 마이산 작가의 '자연이 준 선물 마이산' 사진전이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전주시청 앞 청목미술관에서 열렸다.

마이산은 하늘과 땅이 만난 곳, 오랜 시간 자연이 빚어낸 신비의 산이다. 김재일 작가는 계절마다 다른 표정으로 말을 건네는 풍경 사진이라는 기록으로 담아냈다.

단순한 풍경을 넘어 마이산이 품고 있는 고요함과 생명력, 그리고 그 속에 스며든 시선을 나누는 자리다. 작가는 초등학교 시절 소풍으로 마이산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그때부터 시간이 나면 마이산으로 산행을 하곤 했다.

그는 이번 전시회를 '마이산 사랑'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게 되었다고 소개한다. 촬영 장소는 다양하다.

'가파재 일몰'을 비롯 '동춘 명품 소나무 일출', '고속도로 휴게소', '홍삼농공단지 건너편', '마이산의 아침 이산로 앞에서', '정천 방향의 동산 별들', '주천면 연화재 아침', '탐사 역고드름과 마이산 탐사', '식다리재', '운산리 투구봉의 아침', '상평마을 뒷산의 새로운 시작이 눈길을 모은다.

특히 '주천 연화재 은하수', '마이산 탐사 설정', '암바리봉 정상 일출', '백운동 계곡의 수탈래', '동향면 백로의 사랑', '물곡리 앞산 하루가 지나면', '반월지 반영', '마이산 부부의 지나간 세월', '산입마을 앞 작약의 하루', '식다리재 하루를 보며', '홍삼농공단지 건너편 고속도로 설정', '마이산 뒷산봉 은하', '탄금봉 벚꽃' 등도 명품이다.

단종과 영월염씨 엄홍도

영월염씨 시조 엄임의(嚴林義)는 고려 때 호부원외랑을 지냈고 나성군에 봉해졌다. 그는 본래 중국 한나라 영자봉의 후손이다. '위선 피화 오소감심(爲善被禍 吾所甘心)' - 좋은 일을 하고도 화를 당한다면 수습하고 어디론가 사라져 달게 받겠다'는 절규에 찬 경기가 바로 영월염씨 가문의 가현(家勳)이다.

어린 왕 단종에 바친 충절로 보복의 칼날 앞에 서더라도 결코 두려워 않겠다던 영가의 12세손 엄홍도(嚴興道)의 유훈이 그대로 문중의 정신으로 이어진 것이다. 강가에 버려진 단종의 시신은 까마귀밥이 되도록 "누구든 손을 대면 삼족을 말한다"는 여령이 내려져 있었다.

당시 엄홍도는 영월 땅의 호장(將)의 우두머리였다. 자신은 물론 일족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줄을 알면서도 그는 거역에 써인 단종의 시신을 수습, 동을지산(현 재 단종의 묘가 있는 장릉)에 모셨다.

그리고 성을 갈고 어디론가 흩날려 떠나버려 자취를 감추었다.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는 원래 마을 이름이 행정(杏亭)이었다. 시조 엄임의가 이곳에 정착한 후 손수 은향나무를 심고 마을 이름을 행정이라고 지어 불렀다. 수령 1천 년이 넘은 '신수(神樹)'로 천연기념물 76호로 지정돼 있다.

이 은향나무는 염씨 가문의 상징이다. 경술국치 때는 동원 큰 가지가 부러져 떨어졌다. 해방 바로 전에는 동쪽 가지가, 그리고 6·25 동안 때는 북쪽 가지가 부러졌다. 나라가 재앙을 맞을 때마다 스스로 가지를 부러뜨려 이를 알려주는 것으로 믿고 있다.

사내 · 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독자제언

무인점포 절도, '기술적 보완' 과 '사회적 안전망' 병행돼야

최근 동네 곳곳에서 인형뽑기, 간식, 아이스크림, 세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무인판매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과 24시간 운영이라는 장점 덕분에 급증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상습적인 절도와 기물 파손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우리과출소 관내에도 무인판매점이 많이 운영되고 있으나 관리하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아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의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인점포에 대한 주요 문제점은 보

안의 허술함으로 대부분의 무인점포는 CCTV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시간 대응이 어렵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잠깐 빌려가는 것' 혹은 '결려도 훈방'이라는 범죄 의식의 부재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 재범률이 높습니다.

경찰 행정력의 한계로 소액 절도 사건과 재물손괴 사건 신고가 빈번하게 접수되면서 치안 현장의 피로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는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만큼 무인점포 설치시 철

저한 시설요건으로 자위방범 체계를 갖출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카카오톡 QR 코드, 혹은 생체 인증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이 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는 잠재적 범죄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입니다.

단순 녹화 방식에서 벗어나, 물건을 가방에 바로 담거나 결제 없이 퇴장하는 등 이상 행동을 감지하면 즉시 점주에게 알람을 보내고 경고 방송을 송출하는 지능형 CCTV 및 AI 보안 솔루션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CCTV 작동 중'과 같은 경고 문구를 시각적으로 더 강하게 배치하여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CPTED)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인판매점은 단순한 유통의 형태를 넘어 우리 삶의 편의시설로 자리 잡은 만큼 기술적 보완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정직한 노력이 범죄로 인해 꺾이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기훈원주경찰서 서서파출소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